

삼성전자, 반도체와 LCD 통합운영

DS사업 총괄 권오형 사장 임명 ... 반도체-디스플레이 시너지 제고

삼성그룹은 부품사업의 시너지 제고를 위해 메모리, 시스템 대규모 집적회로(LSI) 등 반도체 부문과 액정표시장치(LCD) 부문을 모두 맡는 DS(디바이스 솔루션) 사업총괄을 신설하고 권오형 반도체사업부 사장을 총괄 사장에 임명했다고 7월1일 발표했다.

권오형 사장이 부장이던 반도체사업부는 폐지되고 메모리 담당(전동수 사장)과 시스템LSI 담당(우남성 사장)은 각각 사업부로 격상돼 최지성 대표이사 부회장 직속의 DS사업총괄 산하에 들어간다.

권오형 사장은 LCD 사업이 위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게 LCD사업부장도 겸직한다.

또 사업총괄 사장을 보좌하고 부품사업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DS사업총괄에 경영지원실을 신설해 신임 실장으로 김종중 삼성정밀화학 사장을 선임했다.

LCD사업부장이던 장원기 사장은 최지성 부회장의 보좌역으로 위촉해 DS사업총괄의 제조 및 설비 일류화를 지원하게 된다.

신종균 무선사업부 사장은 디지털이미징사업부까지 관장하게 해 무선사업부의 기술과 역량을 바탕으로 카메라·캠코더 사업의 경쟁력도 높이도록 했다.

또 정현호 디지털이미지사업부장(부사장)이 미래전략실 경영지원팀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후임에 한명섭 PDP일류화TF장(전무)을 임명했다.

삼성은 DS사업총괄 신설로 의사결정이 빨라지는 것은 물론 메모리, 시스템LSI, LCD와 삼성모바일디스플레이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부품사업의 기술개발, 제조, 구매, 대형 거래처에 대한 영업 등 시너지를 제고하고 반도체-디스플레이 교류를 통해 경쟁력을 높일 방침이다.

한편, 삼성전자는 조준형 부사장(대표이사 보좌역)을 경영지원실 법무팀장에, 조남성 전무(스토리지담당)를 스토리지 담당 겸 생산기술연구소장에 각각 임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07/01>